

2



철학박사 북한 김대 총장 유성훈 선생

유성훈 선생은 1906년 12월 29일에 원동변강 북관구역 남향동에서 중농민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유

선생은 어린 유년 시대부터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고 어른이
어른스럽었다. 유선생의 부모들은, 남향동에 소학교가 없
었으나, 어린 소년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자 부세되는 때부
터 집에 앉혀 놓고 독선생을 읽어주며 교육을 시켰다. 다만
1917년에 초중에 갈일이 되자, 유선생은 최립학교로 가게되

었으나, 벌써 준비된 학생으로서 초중 일학년만에 입학하였다.

1920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을 마감하고 원동에서도

명성 높은 소왕령 한인 사범전문학교를 1924년에 졸업

하시었다. 사전을 마감하신후 유선생은 약 6년간 고종 및

초중 역사 교원으로 하시어 초중 및 고중 학교장 직무에 임하시

였다.

이 당시에 원릉변강에는 지식을 소유한 한인간부들은 아주 희소
 하였다. 자기 조국을 일제에게 점령당하고, 살길이 없는 한인들은
 다만 살길을 찾아, 처음에는 한국에 왔다가, 거기에서도 자꾸는
 들의 착취가 혹심하여 원릉변강에 넘어온 한인들이 점점 다 빈
 농민들이었다. 다만 1919년 3.1 운동이 있은 다음에야 부분적
 한인 인테리들도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원릉변강에 넘어
 오곤 하였다. 이로 다후는 처음에는 원릉에서 빨치산 운동, 다른
 혁명군에 가담하여 백로시아 군연들과 전쟁을 하였다. 이런
 테리들의 기대는 소련에서 해방전쟁이 끝나면, 한인복대들게
 녹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 조선반군도 일제로 복귀 해방
 할것을 기대하였으나 소련 정부는 원릉에서의 해방 운동이 끝나자
 전체 빨치산 부대들에게서 무장 해체를 요구하였리며, 전쟁의
 신이 쟁제 건설의 노선은 잡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인군
 인들은 크게 실망하였으나 할수없이 당의 노선에 수응하여 경
 제 복구 건설에 들어 서면서 농촌들에 학교로 설치하고 그때
 까지 없던 한인학교들을 세우고 아이들도 교양하게 시켰다
 었다. 유성훈 선생은 원릉변강에서 태생하였으나 한인양식
 을 방불하게 소유한 세롭게 준비된 교원 인테리로서 아주 위선
 있게 사업하시었다. 이렇기 유성훈은 1931 까지 원릉변강연
 해 주 각 지방에서 위선있는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선생은
 자리 상식을 높이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여 1931년 1932
 년에 원릉 불라지 위선으로 한인 사범대학이 설립
 됨으로 선생의 생활을 다복게 하였다. 선생은 1932년
 에 처음 설립된 사범 학생으로, 즉 대학생으로 공부하
 시면서 대학내 새로 조직된 "노동학생" 즉 대학 예비과
 에서 교원으로 강의하시었다. 때문에 유성훈은 경제문
 제에 대하여서는 구족을 받지않고 공복근 하시어 일드
 하시었다.

원동면장 블라지워스도크 한인사범대학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 열린 우수한 한국어 사범대학으로서 1931년 9월 1일에 개학을 선포 하였다. 대학에는 어문학부, 역사학부, 수물학부, 자연-화학 학부가 있었다. 조직 초기에 24 명의 교직원, 교직원 191명이었으며, 첫 입학자 수효는 481명이었으나, 1935년에는 2131명이었다. 대학에는 당시 원동에서 유명한 한인 인테리, 박사 학사들 여러 명이 와서 강의하게 되었다. 계몽우 한국어 박사, 하가디 독학 박사, 모가이 벨르르 역사학 박사, 리비바할 생물학 박사 등 외에 서울과 동경에서 대학들을 졸업한 많은 학과들이 교수 직업을 역임하시었다. 유성훈 선생은 벌써 사회 생활에 경험이 많으신 성숙된 간부로써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또 동학원의 교원노릇을 하시면서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면서 대학내의 청년 군중을 만나-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조직 진행하였다. 유선생은 사대 역사 학부를 1935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필하시고 해삼시, 즉 블라지워스도크시에서 약 24 길로 거리를 떨어져 있는 알즈시 초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받아 가시어서 사 업하시었다. 당시 고중학교는 블라지워스도크, 히바롭나크, 한인 자치회가 존재하여 있는 보시예츠크역 크라쓰끼노 애 있었고 소왕형에는 한인 사전이 있었다. 교육 경험, 학교에 대한 지극 경험이 풍부하신 유성훈 선생은 알즈시 고대인 초중을 원동면장으로 모범학교

4.
들음 하나를 만드시고 원종 병강적으로나 영해주적
으로 집행되는 강종 정협회화회의 등에는 항변로 배하짐
없이 참가 하시면서 권 병강적으로 보법 교육자로써 일
하시였다. 함원종 병강에서의 한인들의 생활은 그 문화가
극도로 음성 발전된 시기였다. 그러나 1937년이 닷새오자
10월에는 한인들의 그 찬란하던 문화가 소탈원의
한압 정책에 의하여 완전히 말살되고 파괴되
여 버리고, 살아남은 한인 어류들이 자라나는 후대들
은 곧어 문화로 전환하여야 되었다.

유선생은 자기가 관공비하고 꾸러놓은 정은
학교를 떠나 한인 강제어족인들과 함께 화를 떨치
에 실의 가사호 공화국, 가라간다 단광에 도착하
게 되었다. 가라간다 때는 한인 학교를 열면 학교
사가 없었으며, 교육기재나, 아무런 돈으로 없었다. 그러
나 유선생은 헌 변집을 하나 배정받아가지고 헌반에 두
학급씩 안치고 12월 1일 복학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4
1938년 1월부처는 또 다른 새로운 난관이 생기였다,
그것은 전체 한인학교들은 한인어 교육은 폐지하고, 종전
강령대로 로어로 교육을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유선생은
상식을 아주 발휘하였으나 그러나 곧어말은 막혀있다. 이
러한 경우에서 초중교장도 변변히 할수없었지만 아이
들에게 한과목을 교구할수 없게되었다. 흥터나, 수학
과목과 달리, 러시아학 과목은 더구나 고려하였다. 때
문에 유선생은 가라간다 시를 떠나 사범대학에

이국하여온 가사호 공화국대 크를올다시세 가사에서
 사대내에서 한국어 강좌에서 임시로 일하시면서, 또
 다시 로마 강좌에서 청강생으로 공부로 하시였다. 이렇게
 일년 동안 교생하다가 1941년에는 두르백 공화국 하필
 칩 구역 레닌 명칭 호중에서 열성적으로 일하여 자
 습도 하시며, 학교 건설에 열성을 다하여 참가하시였다.
 이 곳에서 새 학교를 세우고 호년 동안 안전하게 일하
 시다가 또 학생부처 조장으로 하유게는 시군방 안기
 을 고중에 교장으로 배치되어 1942년 부처 일하시였다.
 유선생이 안기을 고중 교장으로 일하시던 시기는 소련에
 있어서 아주 큰 시련의 시기였다. 벌써 수년째 계속되
 고 있는 독소전쟁은 많은 유능한 간부들을 전선에 나가
 게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들에는 인재를 부족하여
 총생산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민 생활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고중학교장으로 일
 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다. 학생들을 공부로 하
 면서 일도 하였으며, 때때로는 서쪽 전쟁지역으로
 부처 실례모든 군수공장 시설들을 하차하도일에
 누알씩 동원 되어 일하였다. 특별한 대학 교수, 학자
 박사들까지도 하차사업에 동원 되어 일하였으며,
 때로는 뱃어면 역전에서, 우직실에서 자면서
 일하였다. 이렇게 바쁜 환경에서 3년간 일하
 다가 1945년 8월에는 유선생 선생은 군수공

6
원부의 명령을 받아 공화국 군사지원부에 도착하
여 원종변장 원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제 25군단
사령부에 신속히 가야 된다는 지시를 받고 곧 출발
하려 하였다.

유선훈 선생은 1928년에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으나, 별다른 당시에는 아들 3형제가 없
었다. 군대 복무에 출발하는 봄이 되니 가정은 어쩔
게 해야 된다고에 대하여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
하고 또 집에 다시 가지 못하고 출발하여 25군단
주재의 원종 위문실로보시로 도착하여, 경외부의
지시를 받고 일하시었다. 여기에서 얼마동안 지내하
지 않고, 동만 국경을 공격하는 소련군 경외부에 속하여
일본 패잔병들에게서 한출한 물건들과 한편 일본
군 병사들에 대한 죄물지도를 취급하면서 동만 전역
을 걸쳐 두만강을 건너 평성, 회령, 무산, 지부
청진, 4집으로 지나서 함흥시에 걸쳐 평양에까
지 9월 말에 도착하였다. 평양에 도착하자 유선
생은 25군단 원전 사령부에 속하여 역시 경외부
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시었다. 한편 사령부란
군대가 주둔구역 안민도를 지르라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각 산업부문을 지르하기 위한 부들이있었다
하면 출판, 보건, 보안, 내무, 교육부까지 합하여
한국의 내각과로 상사하였다. 유선생은 주로
과학과 고등 교육부, 출판 편찬부까지 지르 하시며
1946년 5월까지 일하시다가, 1946년 6월부터는

북한 내각고급지도간부학교 설립 및, 소련공산당 대공지도 경험이란, 학부장 겸 철학강사로 일하시었다. 이 학교는 동평양 사동 한광동에 구제하여 있었으나 학교는 그리 크지 않게 약 350명의 학생들을 3개월기한으로 양성하군 하였대 이 350명은 하급이군인인



사진은 유성훈 선생의 가족사진인바, 유성훈선생, 딸-4자, 부인이 석선, 차남 지세이 촬영했음.

위원회 위원장 군당위원장,으로 시작하여 각 프당 고급간부들과 각 성에서는 상, 부참들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전부다 약 4-5천명의 학생을 받게 마련이었다. 학교에는 350명을 위한 기록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350명을 보강하는 고급식당이 있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전부는 소련군대 본부가 현금으로 보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본 학교의 교장에는 명예직으로
 김일성이고, 부 교장에는 김삼만, 박영빈 선생들이 1950
 년 9월 까지, 평양이 함락되던 날까지 일하시었다.
 전쟁시기에는 학교가 동양국경 안포를 걸쳐 북
 에 까지 이주하여 갔다가 다시 평북에서 일하였다
 초사기, 즉 조직중시기에 있어서 내각중앙지교간부학교
 전원 진영은 대단히 쇠였다. 북원에서 북한에 나가있
 은 전체 학과 지식층은 다 이 학교에서 일하였다 어리
 하여 유성훈 선생으로 부터 시작하여, 박영빈, 정국록, 강상호
 김동철, 원희안, 장남익, 박형식 선생님들이 일하시었다.
 그 외에 리춘백 선생은 인민군대 북부에 들어가서 전
 까지 일하시었다. 내각 간부학교 제 1회 졸업식은 1946
 년 9월 중순에 있었는데 이 졸업식에는 김일성 내각
 수상, 김두봉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인민당 당부
 를 비롯하여 수령군 25군단 쓰띠꾸부 대장, 인
 전 사령부 사령관 루리넨코 소장, 25군단 정치부장
 그로모브 대좌, 정치부 선전 선동부장 예르닐코프 등 고
 위급 간부들의 직접 참석하여 성대히 진행되었던
 바, 제 1회 간부학교 졸업장은 김일성 수상이 직접 수여
 하였으며, 김일성에 대한 찬사는 황도, 리대 부총장이
 로어로 "장백산 줄기-줄기" 김장군 노래를 바탕으로 하여
 낭송하여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1948년에는 남한
 국회 의원 백여명 어상을 초청하여 간부학교에서 공부
 제하고 그들을 북한 인민회의 대의원들과 함하여
 1회 통일정부를 세운다 고 하. 1950년 6월 25일

9

에는 남북 통일을 향유하여 동족 상잔을 개시 하였다.
 유성룡 선생은 6.25 사변 당시 조흥당 중앙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 나가시어서 많은 활동을 하시었다. 그대
 활동 범위 내용은 북한에 남한에다도 북한 모델 리제도
 를 수립하기 위하여 각료에는 조당들을 조직하며, 서울특
 별시에는 시장, 시민위원회 원회를 조직하는 문제였다.
 그당시에 서울 중앙청에는 전설사령부, 고려 호텔에 서
 울 시민위원회 원회가 박창식 선생의 지도하에 있었고
 서울 시장은 리승엽 선생의 지도에서 사업하시었으며,
 연변군 전선 총장시장은 작은 김일성지 지도하에 함평
 원에서 사업하였다. 그후 1950년 9월 10일 하룻에
 연천에 유엔군의 상륙하자 동원 9월 25일에는 서울
 시가 함락되고 전반적 후퇴와 시작되자 유성룡선
 생은 막대한 고생을 겪으면서 안포까지 후퇴하
 여 돌아와 다시 내각 고급지도 간부학교를 만나 그
 의 책임직으로 평안북도 경주시에서 1954년까지 일
 하시고 1954년 가을 북하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으
 로 일하시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평양 호란봉석북
 편 야구 경기장이 좋은 장소에 자리잡아 있으나, 조국전
 쟁시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전후 단기간에 복구
 하여 (다) 전쟁전보다 위대하게 일터였다. 그러나
 전쟁 3년기간에 전체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고, 농촌경
 리가 황산된 조건에서 가진 맥진인민들이 소련과 중국정
 부의 방조에 의거하여 겨우 숨쉬며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조건하에서 전국 물질 생산량은 보잘것없이 축소되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전체 대학생, 대학생 및 중입원들은 밤

낮 일하여야 먹고 살아가기 바빠 바빴다. 그러나 편편라
 대학생들은 광명한 미래를 믿으면서 허위떡을 끌라내고
 일하여 라도 연구하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유선생은
 생은 특별한 희망을 걸고 열성을 다하여 대학내 모든 사
 업들을 조직적으로 하여, 또 자신의 감의로 한 번은 배워갔었
 이 진행하였다. 이렇게 유선생은 자기가 조직하고 집
 행하는 사업에서 유쾌감으로 성스럽게 즐기며, 희망도 있고
 또 자기가 지도하는 단체 구성원의 신임도 두텁게 자라는 것
 을 간감하기 시작하자 1956년 초에 조선 우르백 공화
 국 벨리모절 끌호르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누이동생 유혜라
 바바를 고향나 와, 끌호르에서 아주 신임있게 다년간 일하고 있는
 박 셰프레이 에게 편지를 쓰기를 « 언제는 소련에서 그만
 일하시곤, 여기 조선에 나와 일하면서 같이 살자고 » 하였다.
 그리하여 이상 두 양주는 사실, 고향에 나가 살겠다고 준비
 하면서 조선 정부의 정식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두 분
 은 우르백 공화국에 살면서도 그때나 현재나 살림살이는
 아주 넉넉했고, 사취 건물, 내복 살림사리가 훑, 일일이
 다 당시 북한 극장들이나 상들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
 리 특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호이스롭은 생활이 지루한
 감을 주거나, 자가용 승용차가 들며서 가려한 것이 아
 니라 다만 한 마리 말 « 고향 » 이 푸글자가 금보
 다도 그리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맘 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편지는 1956년로에 날리웠으나 1957년로에는
 꼭 쳐나리라고 기다렸으나 초청장도, 편지로 알오던 것
 이었다. 3월경 어상이 행복하게 살며 일하고 있는 집

단 농장을 ~~별~~ ~~필~~ ~~요~~ ~~성~~ ~~질~~ ~~을~~ ~~조~~ ~~는~~ ~~것~~ ~~은~~ ~~적~~ ~~은~~ ~~다~~ ~~너~~ ~~화~~ ~~려~~ ~~하~~ ~~여~~ ~~가~~ ~~고~~ ~~있~~
 는 형편에서 ~~더~~ ~~나~~ ~~갈~~ ~~마~~ ~~음~~ ~~을~~ ~~적~~ ~~기~~ ~~로~~ ~~어~~ ~~만~~ ~~-~~ ~~적~~ ~~만~~ ~~바~~
 뻐지 ~~않~~ ~~았~~ ~~나~~, 이미 결심하였으니 꼭 ~~더~~ ~~나~~ ~~야~~ ~~된~~ ~~다~~
 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유성훈 선생께서 권리 환강 보내
 주지 않으시니 기다리기 대단히 답답하였었다. 그러던
 차 사상검토에 설참으로 결의 고생하다가 부분적 동지들은
 갈목에 들어갔다. 또 ~~어~~ ~~떤~~ ~~분~~ ~~들~~ ~~은~~ ~~가~~ ~~족~~ ~~라~~ ~~함~~ ~~께~~ ~~한~~ ~~광~~, ~~광~~ ~~산~~,
 그렇지 아니하면 두대산골에 정배사리를 갖다나하는 소문
 이 들어 오기 시작하여, 1957년 9월에 권을권 등
 혁, 기숙복, 작은 김일, 명철봉 등 동무들이 귀국하여
 물때에 인천에 가리곤 온 편지에 유성훈 (선생)의 선
 생의 소식을 "내가 아마도 여기에 와서 과오를 ~~변~~ ~~한~~ ~~일~~
 이 있는 것 같으니, 누이동생과 배부 두분은 아직 여
 기에 오실 일에 대하여 잠간 중지하고 기다리라"고
 하였었다. 그 ~~몇~~ ~~달~~ ~~후~~ ~~에~~ 유성훈 선생의 동생 유성철 (총
 참모부 부참모장 겸 작전국장) 이 가족을 데리고,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의 방조에 의하여 용형 사선을 넘어
 하남권에 도착하게 되었다. 유위라는 자의 작은
 오빠 성철에게서 모든 사실을 자세히 들었다. 그때
 에야 유위라와 박세르게이는 하늘 나라의 낙원
 처럼 믿고, 꼭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북한에
 대하여, 인간의 불화, 개싸 혼란, 서로 뜨고, 물고
 차고 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 그와 똑같은 소련
 군대의 위대한 자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소련을 떠날
 하려, 소련에서 위대한 간부들을 다 잡아 죽여온 단독재판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성훈 선생은 원중에 있을 때

복서 자기 친척들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관심을 돌리
 준 하면서, 어디에서 살던지 한곳에 집결하여 같이
 살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 물 밖고, 산천
 이 따름다운 북한에서 다 같이 살기를 원하면서 아릅다운
 꿈과도 속으로 그리 밝으나 김일성의 동재 왕좌극의은목
 었이나 다 파괴하였다. 유성훈 선생, 우정보다 큰 허창백하고,
 인자하고 선량한 선배에게 사상검토 물감을 걸고
 노련 가족주의, 노련 조국주의, 허카이나, 박창욱이나 기타
 다른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범죄적 지시가 반듯이 있을 것이니
 내며 놓으란 다짐, 이것은 참 없는 것을 었다고 하니, 조
 선 독답에 "비선 복어나 출적 뒤 번지여 벗어 깃는가?" 참
 큰 구멍을 막지 않고도 답답한 었어었다. 유 선생은 홍광
 직장에서 벌써 해임되고 다만 사상검토 회의에만 참가
 한지로 오래 었어 넘었다. 형백한 선생에게 허물어 었는
 굴레를 씨익 놓고 매일 수십명 당원들이 물여 들어 쪼리
 준 하리 때 들에 유 선생은 벌써 식비를 전히 었어 버리고
 벌써 1959 2월에는 황달병에 걸려 집에 누어 었었다.
 유 선생은 여러번 자살할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서
 자기에게 쪼가 었는한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고 맞이락으로 김일성 "어찌에게 편지를
 물려려고 마음 먹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나는 노련에서 이곳에 와 건하여 이 때까지 수상
 동지의 지시를 지켜가니, 집합하러 뿐 15년간
 었어었던 바 도집에는 단 옆에 걸려 황달병에 었
 어가 침대에 누어 었습니다. 내가 맞이락으로 수상
 동지에게 신청하는 바는 나를 노련에 쪼여 주기가 흥망
 노에 가서 장기간 쉬도록 받고 다시 돌아와 일하게 하
 여 주십시오. = 하였다.

13.
그 해 1959년 5월에 김일성 수반의 허가가
있을 후 조선대사관의 허가 및 국적 불리등하여 1959
년 말에야, 소련으로 귀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소련에
임시 병치료를 받는 것으로 약속하여 가시고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이 같이 보내질 것은 증명하라 하여, 북인아
병시공군으로 따라오게 되고, 또 거기엔 꼬매이 딸타이든
할수없이 데리고 왔으며, 그외 아들 형제는 벌써 수
년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유학하였기 때문에 따라
오지 못하여 같이 갈수 없었다. 이렇게 병치료를 소련에 돌
려와 갔던 다시 조선에 나가서 아내와 고향에 돌아
온 셈이 되고 말았다.

유성복 선생은 1959년 11월에 예천읍에 휴양소에
모셔져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
회의 총원으로 내어 완전히 소련에 귀향하는 것으로 약속
하고, 바로 예천읍에 휴양소에 살림집을 배정받았다.
휴양소에서 장기간 치료받도록 함란병은 떨어 주었다고 하
여도 심장병에 의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라, 말로 하시며,
책도 볼수 없었다. 그외에 예천읍에 시당 직위감사
를 12 휴양소, 각기 관동에 돌아 간 나머지 강의를 하
시면서는, 항상 고향에 대한 고독, 그 사상검찰에서
박해를 받은 설음, 고민등은 한시라도 유선생의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리하여 유선생
은 고민에 고독을 느끼다가 1966년 8월에, 아내
를 알리기로 하시고 예천읍에 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유선생의 복원 리덕성이와 딸 나라도 예천
읍기에 무사히 있으며, 차남 딸태이든 모스크바에서
고독사상에 주력하고 있다.

장영복